

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 2조원 투자

기후변화협약 연구개발 종합대책 확정 ... 2010년까지 44개 사업 개발

정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화석연료 대체기술 등 총 44개 사업에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.

정부는 5월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<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종합대책>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.

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데 이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구조에 일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.

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△화석연료 대체 △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△이산화탄소 포집·처리 및 흡수 △비이산화탄소 제어 △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5개 대분류 기술을 선정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.

정부는 이와 관련해 태양광·풍력 발전과 수소·연료전지, 부문별 효율향상, 온실가스 분리·회수 및 저장,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28개 중분류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

특히, 장기 중점투자형 기술로 원자력이용 수소제조를 포함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선정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.

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,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44개 사업에 총 1조9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분야별로는 화석연료 대체기술이 9315억원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7844억원, 이산화탄소 포집·처리 및 흡수기술 1453억원, 비 이산화탄소 제어기술 359억원,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491억원 등이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.

정부는 특히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간 중복방지 및 상호 연계,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기술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기술평가와 예산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.

정부 관계자는 “종합대책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정리한 것으로 향후 지구온난화 예방과 관련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권웅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5/24>